

웅장한 힘에 탁월한 주행능력, 공간성까지 “터프한 매력, 역시 픽업트럭 맛집”



쌍용차 ‘렉스톤 스포츠 칸’

육중하고 강인한 외관 눈길
내·외부 모두 적재공간 넉넉
저속주행시 뛰어난 힘 돋보여

쌍용자동차가 압도적인 디자인과 첨단기술력, 가성비비를 갖춘 ‘렉스톤 스포츠 칸’으로 국내 픽업트럭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

최근 국내 픽업트럭 시장은 한국 토종 브랜드와 해외 브랜드의 수입 차량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완성차 브랜드 가운데 쌍용차가 유일하게 픽업트럭을 선보이며 시장을 이끌고 있다. 쌍용차는 지난 4월 초 출시한 더 뉴 렉스톤 스포츠 칸에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 국내는 물론 해외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에 출시한 더 뉴 렉스톤 스포츠 칸은 첨단 기술 적용과 뛰어난 가성비로 쌍용차의 판매를 견인하고 있다.

최근 렉스톤 스포츠 칸의 시승을 통해 차량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시승 모델은 칸 프레스티지 모델로 옵션으로 4균구동시스템, 차동기어잠금장치, 다이나믹패키지2, 3D아라운드뷰시스템, 스마트드라이빙패키지1, 스마트드라이빙패키지2, 패션루프랙, 9.2인치 HD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모델로 차량 총가격은 3805만원이다.

첫인상은 긴 차체와 높은 차고 등 그야말로 압도적이다. 전면부는 굵은 수평 대향의 리브를 감싸고 있는 웅장하면서도 익사이트한 라디에이터그릴과



쌍용차 렉스톤 스포츠 칸 전측면 모습.

수직적 구성의 LED 포그램프가 절제된 형상의 범퍼와 조화를 이뤄 정통 픽업의 퍼프하고 강인한 느낌을 준다.

웅장한 외모 만큼이나 실내 공간 활용성도 뛰어나다. 특히 뒷좌석 아래 공간을 확보해 조그만 짐을 적재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 적재공간은 1262L 용량에, 최대 700kg까지 짐을 실을 수 있는데 이는 ‘렉스톤 스포츠’보다 각각 24.8%, 75% 높은 수치이며 ‘리얼 뉴 콜로라도’나 ‘올 뉴 지프 글래디에이터’, ‘뉴포드 레인저’ 등 경쟁 픽업트럭과 비교해도 부족함을 찾아볼 수 없다.

주행 성능은 탄탄한 기본기를 갖추고 있다. 렉스톤 스포츠 칸은 최고출력 187ps, 최대토크 40.8kg·m의 성능을 내는 e-XDi220LET 디젤엔진을 탑재했다. 아이신(AISIN AW) 6단 자동변속기와의 조합으로 강력한 성능과 효율성을 선사한다. 거대한 덩치에 비해 차체가 가볍다는 느낌도 들었지만 화물 적재량이 늘어나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저속 주행에서 뛰어난 힘은 매력적이지만 고속 구간에서의 가속력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렉스톤 스포츠 칸이 가장 큰 매력은 ‘가성비’다. 스포츠 모델의 경우 2439만원부터, 칸은 2856만원부터 3649만원으로 수입 픽업트럭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렉스톤 스포츠 칸은 국내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할 정도로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만든 모델인 만큼 위기의 쌍용차가 생존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렉스톤 스포츠 칸 후측면 모습.

두산중, 폐플라스틱으로 수소 만든다

리보테크와 수소화기술 개발 MOU
연 배출 800만 중 절반에 적용 가능

두산중공업이 폐플라스틱·폐비닐(이하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수소생산 기술 개발에 나선다. 이를 위해 폐플라스틱 연속식 열분해 전문기업인 리보테크와 MOU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리보테크는 폐플라스틱을 연속식으로 열분해 해서 가스를 생산하고, 두산중공업은 열분해 가스를 수소로 개질하는 핵심설비와 공정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용하는 연속식 열분해

기술은 원료의 지속 투입으로 연속 생산을 할 수 있어 처리규모를 쉽게 확대할 수 있고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다.

두산중공업은 2021년까지 하루 0.3톤 가량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소 개질기를 개발해 경상북도 문경시에 위치한 리보테크에 설치, 운전할 예정이다. 이후 실증과제를 통해 폐플라스틱으로부터 하루 3톤 이상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을 상용화할 예정이다.

송용진 두산중공업 부사장은 “매년 국내에 800만톤 이상의 폐플라스틱이 배출되는데, 이 중 매립, 소각 및 SRF

(고형폐기물) 원료가 되는 약 4000만톤의 폐플라스틱에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며 “폐플라스틱 수소가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생산된 수소는 추후 연료전지, 수소가스 터빈 등에 활용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강화하는 두산중공업은 다방면으로 수소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창원 분사 공장 내 국내 첫 수소액화플랜트를 건설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는 풍력발전을 연계한 수전해 그린수소 생산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양성운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제네시스, 차량 인도 세레머니 확대 운영

기존 G90서 G80·GV80까지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차량 인도 세레머니 고객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제네시스는 제네시스의 독립형 전용

전시관 ‘제네시스 수지(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소재)’의 차량 인도 세레머니를 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플래그십 세단 G90에서 G80, GV80까지 확대,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제네시스 수지의 차량 인도 세레머

니는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세단 ‘G90’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더욱 특별한 차량 인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했던 서비스다. 제네시스는 이번 확대 운영을 통해 G80, GV80 구매 고객에게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고객에게 차별화된 구매 경험을 선사한다는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감시정찰·항공우주 양날개 한화시스템, 1분기 ‘好실적’

영업익 307억, 전년비 180.8% ↑
레이다·항공우주 매출 43% 증가

한화그룹의 방산 계열사인 한화시스템이 올해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한화시스템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0.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6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전년보다 29.9% 늘어난 3667억원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238억원으로 148% 증가했다.

이번 실적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 다기능레이다 성능개발(천공-PIP) 양산 사업과 AI 보험 자동심사를 위한 차세대 보험코어 시스템 사업 매출이 늘면서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 고속도로 지능형 교통체계(ITS)와 차세대 전자자원관리 시스템(ERP) 구축 등 기존 주력 사업도 안정적 매출을 기록했다.

‘한국형 미니 이지스’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다기능레이다(MFR)와 전투체계(CMS) 개발 사업

에선 첫 매출이 나왔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9월 5400억원 규모의 KDDX의 CMS·MFR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국내 전투체계 개발사업 중 최고액이다.

JTDLS(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 완성형 체계 개발 사업, 한국무역협회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공 사업 등 방산·ICT 분야에서 고무 새로운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영업이익이 커졌다.

또한 레이다·항공우주 사업부문 매출은 43% 증가했다. 레이다·전자광학 등 감시정찰분야 매출은 1151억원이다. 지난달 처음 공개된 한국형 전투기 KF-21의 핵심장비인 능동위상배열레이다(AESA)와 적외선탐지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적추적장비(EOTGP)를 한화시스템이 개발했다. 공군 전투기 피아식별장치(IFF) 업그레이드 사업 등 항공우주 분야에선 443억원의 매출이 나왔다. 감시정찰·항공우주 분야가 1,594억 원으로 1분기 총 매출의 43%가 넘는다.

/양성운 기자

SKT, 유전체 분석 AI알고리즘 개발 나서

지니너스와 신약 타겟 발굴 ‘맞손’

SK텔레콤은 유전체 분석 전문기업 지니너스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인간 유전체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신약 타겟 발굴을 추진하기로 6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SKT는 AI 자동화 플랫폼 메타러너(Meta Learner)를 기반으로 지니너스가 제공하는 유전체 및 임상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유전체 분석 AI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지니너스는 AI 알고리즘의 분석 결과에서 얻어진 타겟을 선별해 신약 개발을 위한 후보 물질을 도출할 계획이다.

지니너스는 정밀의료 및 유전체 분석 전문기업으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기반 유전체 분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유전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바이오인포매틱스(생물정보학)의 다양한 기법을 활용, 임상에서 필요

한 개인 맞춤형 치료에 특화된 유전체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간 유전체 정밀 분석은 암 진단과 치료, 심근경색이나 치매 등 다양한 질환의 개인 맞춤형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다. 한 사람의 정확한 유전자 분석을 위해 생산되는 데이터가 약 100기가바이트(GB)에 이를 정도로서 AI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

이번 협력으로 개발되는 ‘단일세포 유전체 분석 AI 알고리즘’을 통해 양사는 인간 유전체에 대한 정밀 분석을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여러 장기 및 말초혈액에서의 병리학적 특성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다양한 질환 연구 및 치료제 개발, 맞춤형 정밀 의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나인 기자 silkini@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SK종합화학, 폐멸균팩 재활용 팔 건어

매일유업 등 3개사와 업무협약

SK종합화학이 매일유업, 테트라팩코리아, 주신통상과 함께 국내 최초 멸균팩에서 플라스틱·알루미늄 복합소재를 뽑아내 재활용하는 데 뜻을 모았다.

SK종합화학은 6일 서울 종로구 소재 SK서린빌딩에서 3개사와 멸균팩 재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복합소재는 산소 및 자외선 차단 기능이 뛰어나 우유, 주스 등 내용물의 장기 유통이 중요한 멸균팩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소재 생산, 완성품 제조 및 유통, 사용 업체 등 산업 생태계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기업들이 재활용에 함께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SK종합화학 등 4개사는 이번 협력으로 폐 멸균팩의 복합소재까지 재활용하는 길을 열어 넓은 범위의 자원 순환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연간 3천톤 규모의 복합소재가 재활용되고, 연간 1만9000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나무 25만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규모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매일유업은 멸균팩 수거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복합소재로 만든 식음료 운반용상자도 입을 검토키로 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